

‘인류,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다’

대구상원고, 학생 주도 ‘자율적 교육과정’ 주간 운영

대구상원고등학교가 지난 15일(월)~19일(금)까지 ‘자율적 교육과정’ 주간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특색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과 융합 프로젝트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종합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교과 융합 프로젝트는 ‘인류,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된다.

학생들은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중 하나를 선택해 자기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이 과정



에서 학생들은 여러 교과와 지식을 융합해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된다. 문화 활동 면에서도 학생들

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인다. 밴드부 ‘리벨리온’의 등극길 공연은 학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뜻깊은 시

간이 됐다. 김은미 리벨리온 밴드부 담당교사는 “학교는 지금 자율적 교육 활동 주간이다. 이렇게 밴드부 공연, 학생 작가전, 그리고 캠페인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가현 리벨리온 밴드부 동아리장은 “1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기의 마무리까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밴드부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술 작품 전시, 마약 퇴치 및 흡연 예방 캠페인, 생명 존중 서약서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져 학교 전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원혜민 레이아웃 동아리 부장은 “평소 동아리 시간에 준비했던 교내 작가전 작품을 자율적 교육 활동 기간에 전시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상원고의 이번 시도는 학생 중심의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좋은 사례로, 향후 다른 학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득 객원기자

기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사생활의 평온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집회·시위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기본권인바 제한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법에서는 폭행·협박 등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등 특정 행위를 제한하고 소음에 대한 규제도 명시하고 있다. 물론 법률로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기에 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 또한 집회·시위 중에 행하여서는 아니 됨은 당연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반이 없다면 집회시위는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제한은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편,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기본권(헌법 제10조, 제16조, 제17조)과 충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과 학습 방해, 자유로운 통행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법만이 아닌 민사법상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형사 처벌을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기에 과태료 등 다른 제재가 가능한 것이다.

집회·시위는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최후의 수단일지도 모른다.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원만하게 집회·시위가 종결되면 다행이지만, 요구하는 측과 수용하는 측의 의견 차이가 큰 경우 때때로 서로 충돌하게 되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집회·시위는 대립하는 양측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무의미한 감정 다툼을 지속하여 최후에는 사회적으로 손실만 보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집회·시위를 통해 그동안의 울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의 요구에 진심을 기울였던 사람들, 오랜 기간 사생활의 평온을 담보 잡힌 시민들의 불편이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배려는 어떤 불편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에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닐까? 판단의 기준을 타인 쪽으로 조금 기울여 보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달서경찰서 경비직전계장 경감 윤덕현

대구달성도서관 중학생 대상 ‘여름 도서관학교’

대구달성도서관(관장 정현호)은 오는 8월 1일(목)~9일(금)까지 중학생 대상 여름 도서관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아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성AI 및 코딩 교구를 활용한 창작 활동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으로 맛보는 창작의 세계를 주제로 생성AI 활용 웹툰 작가 체험, ▲영상 크리에이터 체험, ▲머신러닝 활용 스마트홈 개발자 체험, ▲아두이노 코딩 교구 활용 게임 개발자 체험 등 총 4회차로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며, 회차별로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독서문화실(☎231-2171)로 문의하면 된다.

